

## 민주 음주운전 처벌 심사 강화...광주 선거판 ‘요동’

지방선거기획단,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부적격 판정  
 민주당 광주시당 3진 아웃제 건의...최종 도입 여부 주목  
 서구·광산·남구 등 단체장·지방의원 입후보자 ‘출마 기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예비후보자들에게 대해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키로 해 선거구도 재편 등 선거판이 요동칠 전망이다.

30일 민주당 광주시당 등에 따르면 중앙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전날 회의를 갖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한 차례라도 음주운전 적발한 이력이 있을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심사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애초 민주당 광주시당은 윤창호법 이후 면허 취소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로 했지만, 선거기획단은 적발만 해도 후보자격을 주지 않기로 기준을 강화했다. 중앙당 비대위에서 이를 최종 결정하면 음주운전 경력의 일부 예비후보는 출마를 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또 음주운전 4회나 적발된 예비후보가 당의 검증을 통과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2000년 초반에 여러 건이 적발

돼 검증위가 공관위로 ‘정밀심사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로 이관’ 결정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광주시당은 3회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 예외 없는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도입하자는 요청을 중앙당에 해놓은 상태”고 밝혔다. 이 역시 중앙당이 최종적으로 건의안을 받아들일 경우 현재 자격심사를 통과한 예비후보자는 민주당 옷을 입고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광주 서구와 광산구, 남구 등지의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 중 음주운전 전력자들은 중앙당 비대위의 최종 결정에 따라 출마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일부 예비후보는 아직 검증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음주운전과 관련해 중앙당의 최종결정이 이뤄지면 민주당 옷을 입고 출마를 하지 못할 후보들도 있을 것”이라며 “중앙당의 최종 결정과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남진기자

## “주변 다 걸렸는데 나만 안 걸린다?” “슈퍼면역은 없어...방심은 금물”

밀접접촉자 불구, 미확진 사례 다수  
 닷새~열흘...잠복기 지나 확진되기도  
 “슈퍼면역...감염 안 되는 게 최선”

“주변에서 다 걸렸는데 나만 안 걸린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중 유일하게 코로나19를 피해갔던 정국이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확진됐다. 정국은 그래미 어워즈 퍼포먼스 준비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후 목에 불편함을 느껴 검사를 했다고 전해졌다. 정국은 방탄소년단 멤버들 중 가장 마지막으로 확진된 케이스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 무적항체를 가진 ‘슈퍼면역자’는 정말 있는 걸까?

지난 13일 가족발로 확진된 이모(24)씨의 경우 온가족이 확진됐을 때 할머니만 확진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씨는 “할아버지께서 확진 되시면서 온가족이 다 걸렸다. 그런데 집에서 같이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같이 쓰셨던 70대 할머니께서만 PCR 음성이 나오셨다”며 “체격 좋고 건강한 삼촌들은 다 걸렸는데 할머니만 안 걸려서 진짜 신기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김모(27)씨도 지난 1월 말 매일 같이 식사했던 상사가 확진됐지만 감염을 피해간 사례다.

김씨는 “과장님이 자녀의 어린이집발 감염

으로 확진됐다. 보통 돌아서만 근무하기 때문에 거의 마스크를 벗고 일했는데도 저는 확진되지 않았다”며 “혹시 잠복기 아닐까 했는데 한달이 넘는 지금도 멀쩡하다”고 말했다.

SNS 등 온라인 상에서도 본인만 유일하게 감염을 피해갔다는 사연들이 다수 공유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신랑이 확진된 후 같이 걸려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해서 마스크 안 쓰고 생활했다. 근데 매일 자가진단키트도 해보고 PCR도 하고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도 해봤는데 계속 음성이 나온다”며 “3년 전에 신랑이 신종플루에 걸렸을 때도 저는 안 옮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잠복기 때문에 당장은 음성이 나왔지만 닷새에서 열흘 후에 확진판정을 받았다는 사례들도 있었다.

한 지역 커뮤니티 이용자는 “가족들 중 나만 음성이 나와 슈퍼면역자인 줄 알았는데 10일이 지나고 나서 확진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슈퍼면역자는 없다”고 말한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어떤 병이든 100% 다 걸릴 수는 없다. 침 맞은 효과가 사람마다 다르고 맞은 시기가 최근이면 효과가 높고 하듯 마찬가지로”고 설명했다.

또 “의학적으론 ‘슈퍼항체’는 없고 그렇게 일컫지는 않는다. 다만 돌파감염 등으로 생긴 강력한 보호 기능을 유지하는 항체에 대해 하이브리드 면역이라고 부른다”며 “슈퍼항체라는 말만 믿고 감염돼서 톱 코비드 후유증에 시달리는 건 정말 큰 손해다”라고 덧붙였다.

기동취재본부



‘아름답게 물든 전주한옥마을’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29일 전북 전주시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앞마당이 꽃으로 물들어 있다.

## “다문화 못 받아들여”...코로나 불통에 국민 인식 후퇴

성인 다문화 수용성 52.81점→52.27점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의 여파로 다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1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가부의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는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성인 5000명, 청소년 5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52.27점으로 청소년의 71.30점보다 19.12점 낮았다.

다문화 수용성 조사는 ▲문화 개방성 ▲국민 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일방적 대화

기대 ▲거부·회피정서 ▲교류행동 의지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 행동의지 등 8개 구성요소로 측정한다.

특히 2018년 조사와 비교하면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52.81점에서 52.27점으로 줄었다.

이 실장은 “코로나19 확산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19 확산은 이주민과의 교류 기회를 줄이고, 외부에 대한 개방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최이슬기자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